

20~30대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

Online Series

2018. 01. 30. | CO 18-03

박주화(평화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20~30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20~30대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시작이었다. 20~30대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20~30대의 통일의식에 있다는 분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20~30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20~30대의 통일의식, 특히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낮다는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청년세대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우려들이 얼마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20~30대의 통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기성세대의 규범적·도덕적 잣대로 재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20~30대의 통일의식을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한 지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20~30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비판이 민족정체성과 단일민족-통일담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20~30대 통일인식에 대한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다.

본 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논란으로 촉발된 20~30대의 통일의식에 대해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

40대 이상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암기한 세대이다. 다시 말해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감을 학습하였고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자기검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고려가 강하다. 20~30대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무감에서 자유로웠을 뿐이다.

<표 1> 통일관련 문항에 대한 연령별 동의 비율

(단위: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당면 목표가 아님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통일보다 경제가 우선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못살아도 된다
20대	38.9	61.7	9.7	73.1	8.0
30대	51.7	56.2	16.3	72.5	9.6
40대	56.5	47.8	12.6	73.9	8.2
50대	65.3	39.7	19.1	67.8	13.1
60대이상	71.0	36.9	22.4	59.8	15.8

*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은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가? <표 1>에서 보듯이 통일의 추상성이 낮아질수록, 즉 통일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이다. 만일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에 대한 개인의 희생여부’로 정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압도적으로 낮으며, 세대 간 차이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통일이 불러올 정치·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과 개인적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렵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이 20~30대의 통일의식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20~30대는 개인적 희생이 요구되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솔직하게 밝힌 반면 개인적 희생이 없는 통일, 즉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통일을 원하는 기성세대의 통일의식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일의식의 복잡성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공동연구자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는 심층분석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통일의 국가적 이익, 통일의 개인적 이익, 북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연령임을 밝혔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13개의 서로 다른 인식 유형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20~30대가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가능성을 무시한 것으로 20~30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또한 20~30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40대 이상이 생각하는 통일이 다를 수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심리적 표상(psychological representation)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표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설문 문항의 제1원칙은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해 동일한 심리적 표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같은” 통일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0대는 40대 이상과 다른 통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30대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였다. 평화적 남북관계가 통일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적 남북관계가 통일에 필수요소라는 질문에 미묘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된다. 20대의 경우 25.1%, 30대는 19.7%, 40대는 19.3%, 50대는 20.6%, 60대 이상은 22.0%였다. 즉 평화적이지 않은 통일을 생각하는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급격하고 돌발적인 통일, 비평화적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민족통일담론의 딜레마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20~30대의 동의비율이 낮은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 반대에 주요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20~30대는 민족통일담론을 외면하고 있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먼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동질성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비율은 20대가 6.3%, 30대는 5.6%, 40대는 3.4%, 50대는 5.6%, 60대 이상은 2.5%이다. 다시 말해 20대와 30대의 민족 동질성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며,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의 명분으로서 민족동질성을 꼽는 비율에서 세대 간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 20대는 26.9%, 30대는 24.2%, 40대는 29.5%, 50대는 28.1%, 60대 이상은 48.6%가 민족 동질성을 꼽았다. 통일의 이유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언급한 20~30대의 비율이 기성세대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담론으로서 민족담론의 약화가 20~30대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힘들다.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이 통일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20~30대의 생각이다. 오로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사실은 통일담론으로서 민족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 세대에 걸쳐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민족담론의 가능성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민족담론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남북단일팀과 통일의식의 연결고리: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그렇다면 20~30대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 표상과 단일팀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 교수가 저술한 『넛지』에서 밝힌 디폴트 옵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은 특별한 설명이나 지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기본적 옵션을 의미한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란은 남북관계, 특히 남북이 함께한 스포츠 행사에 대한 디폴트 옵션에서 세대 간 차이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스포츠, 특히 올림픽에 대한 20~30대의 디폴트 옵션과 기성 세대의 디폴트 옵션은 다르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경우 남북단일팀, 남북 공동입장 및 공동 응원이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단일팀 구성이라는 디폴트 옵션이 반드시 남북단일팀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거나 추진한다는 것이 자동적인 선택이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20~30대의 경우는 한국과 북한의 개별 참가가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디폴트 옵션의 차이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20~30대가 경험한 북한은 핵실험 도발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지뢰 도발, 김정남 암살 등 부정적인

사건 일색이었다. 20~30대의 기억 속에는 남과 북이 함께 긍정적인 일을 도모한 사건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재 20~30대는 1991년 탁구 단일팀, 축구 단일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30세대에게 남북 단일팀 구성은 예외적이며, 설명이 필요한 옵션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저지른 부정적 사건의 수만 본다면 기성세대가 20~30대보다 더 많은 부정적 사건을 겪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남북단일팀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1983년 KBS의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보여준 분단의 비애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북단일팀에 대한 기억은 더욱 강렬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단일팀에 대한 강렬한 경험은 이후 남북이 함께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남북단일팀이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즉 단일팀을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별도의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정책적 함의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20~30대의 부정적 여론은 역설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 간 디폴트 옵션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디폴트 옵션의 차이를 야기한 경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과 북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남북단일팀, 남북 공동입장, 공동응원, 문화행사 등을 통해 서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도 없으며 긍정적이기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교과서나 뉴스가 아닌 경험을 통해 북한, 통일, 평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학습과 경험의 간극을 좁히는 기회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지식의 유일한 근거는 경험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남북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험의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디폴트 옵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20~30대의 디폴트 모드가 기성세대의 디폴트 모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이 될지도 미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확장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통일국민

협약이 20~30세대의 통일의식을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일의식 측정 문항에 대한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30대에 통일의식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20~30대의 통일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것은 2030세대 스스로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게 한다. 즉 20~30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우려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20~30대의 통일인식이 기성세대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며, 설사 변화를 기대하더라도 20~30대의 통일의식의 변화는 훈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감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